

2018  
06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 · 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03 COVER STORY

제56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 06\_07 ISSU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 09 INFORMATION

제5회 화학전문임상병리사 교육생 모집

### 10 INTERVIEW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장학회

# 사전등록 진행 중



**제56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2018. 6. 29(금)~30(토)  
대전컨벤션센터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임상병리사의  
미래”**

주최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후원 대전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

### 학술대회 개요

- ▶대회명: 제56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 ▶일시: 2018년 6월 29일(금) ~ 6월 30일(토)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 ▶학술주제: 임상병리사의 미래
- ▶이수평점: 4평점(4시간)
- ▶주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
- ▶주관: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송치웅)
- ▶후원: 대전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

#### ※유의사항

- ▶등록만 하시고 불참할 시에는 평점 이수가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시행합니다.
- ▶전자출결을 위해 반드시 휴대전화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는 입실과 퇴실 체크 모두 완료하셔야 평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하루에 4시간 혹은 이틀 동안 4시간, 모두 평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평점에 해당하는 최소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셔야 평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4평점 교육의 경우 입실부터 퇴실까지 최소 4시간 이상 충족해야 평점 인정: 시간은 입실이 아닌, 교육 시작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협회 공식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유주, 하성일 / 기자 서운진  
 디자인 · 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제425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대광메디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체외진단 전문기업 SD BIOSENSOR

# (주)대광메디텍 창립 30주년

지난 1988년 창립 이후,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대광메디텍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30년을 이어온 기업정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new

## Automatic Chemistry Analyzer DK-200



- ✓ **최소형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
- ✓ **최소의 유지비용**
- ✓ **일반검사, 응급검사, 재검사를 위한 효율적인 장비**
- ✓ **한글자막 선택으로 누구나 손쉽게 작동 가능**
- ✓ **환자 성명을 한글성명으로 입력 가능**
- ✓ **일반폐수와 시약폐수 분리 배출**

### Specification

- 측정속도 : 200T/Hour
- 큐벳 세척 : 7단계 자동 큐벳 세척 시스템
- 검체 용기 : 3mm SST 튜브 혹은 샘플컵 사용 가능
- 시약 트레이 : 최대 40개 장착 가능
- 시약 용량 : R1 150~300µl, R2 10~150µl
- Bar-code Reader : 장착 가능
- 시약 냉장 시스템 : 4°C ~ 8°C (전원 OFF시에도 시약 냉장 가능)
- 인터페이스 : LIS 인터페이스 지원
- 액상감지기능 : Sample, Reagent
- 검체 트레이 : 최대 40개 장착 가능
- 검체 용량 : 2~50µl
- 치수 : 41.5cm(W) x 56.5cm(L) x 38.5cm(H)

**(주) 대 광 메 디 텍**  
DAE KWANG MEDITECH CO., LTD.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5길5(사당동) 대광빌딩  
본사 | TEL. 02-533-3700 FAX. 02-534-2700  
www.edkm.com

**지사**  
광주지사 TEL. 010-9115-3721  
대구지사 TEL. 010-8660-3719  
대전지사 TEL. 010-9023-3720  
부산지사 TEL. 010-9095-3718

**지방대리점**  
대전/충청 (주)동성메디칼 042-254-5759  
광주/전남 (주)태화메디칼 062-373-5321  
전주/전북 (유)필메디칼 063-272-5580  
대구/경북 네오메디텍 053-527-2892

진주/경남 (주)아이메디텍 055-745-7999  
창원/경남 세진메디칼 055-231-9369  
부산/경남 (주)다우메디칼 051-757-2279  
부산/경남 태전메디칼(주) 051-529-2650

## 제56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 1일차\_ 6월 29일(금)

시간	로비	전시장	101+102	103+104	105+106	107+108	그랜드볼룸
09~10							
10~11			학생포럼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우수논문 발표	Symposium I 2017 연구과제 발표(I)	Symposium I 2017 연구과제 발표(II)	
11~12	등록접수	기기부스 및 포스터 전시			연찬포럼	연찬포럼	
12~13			점심	김영관리 Symposium			
13~14	09:00 ~ 17:00						
14~15			학생포럼	정도관리학술세션 : 정도관리 Terminolog	Symposium II : 4차산업혁명의 개요	International Symposium	
15~16							
16~17							개회식

### 2일차\_ 6월 30일(토)

시간	로비	전시장	101+102	103+104	105+106	107+108
09~10						
10~11		기기부스 및 포스터 전시	분과Symposium	분과Symposium	중소병의원 학술세션 (I)	
11~12					12:30~13:30 점심시간	중소병의원 학술세션 (II)
12~13						
13~14	09:00 ~ 17:00	포스터발표	점심	점심		
14~15		기기부스 및 포스터 전시		구연발표	중소병의원학술세션 (I)	
15~16						
16~17			폐회식			

#### 103+104 강의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우수논문 발표 (KJCLS Research Highlight)

- ▶10:00~10:15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720 nm 에서 망상적혈구 측정 경험  
-성현호(동남보건대학교)
- ▶10:15~10:30 우측 빛장밀이중혈류뱀앗김 중후군에서 이중초음파검사의 유용성  
-한민호(세브란스병원)
- ▶10:30~10:45 편측성 안면경련 환자의 미세혈관 감압수술에서 효과적인 수술 중 신경계 감시검사를 위한 제안  
-임성혁(삼성서울병원)
- ▶10:45~11:00 화학검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용혈 지수 일치화 도구 개발  
-표상신(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 ▶11:00~11:15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의 혈액에서 심장사상충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법 개발  
-성호중(울지대학교)
- ▶11:15~11:30 대중음식점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오염도 조사  
-정무상(제주한라대학교)
- ▶11:30~11:45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에서 다양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이준범(강남차병원)
- ▶11:45~12:00 학술상 시상식

#### 김영관리 Symposium

- ▶12:00~12:10 체혈과정의 감염노출사례와 감염안전관리  
-박태화(서울아산병원)
- ▶12:10~12:20 조직병리검사의 감염안전관리  
-김영주(서울아산병원)
- ▶12:20~12:30 생리학적검사의 감염안전관리  
-이혜란(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12:30~12:40 국가감염관리정책과 협회의 대응  
-윤남섭(서울아산병원)
- ▶12:40~13:00 종합토의

#### 정도관리학술세션: 정도관리

- Terminology  
\*수탁기관인증 교육  
▶14:00~14:40 외부정도관리 관련

#### Terminology

- 이용화(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14:40~15:20 정도관리물질을 이용한 내부 정도관리 관련  
Terminology  
-박형두(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15:20~15:50 환자 검체를 이용한 내부정 도관리 관련  
Terminology  
-김지영(충남대학교 의과대학)

#### 105+106 강의실

- Symposium I 2017 연구과제 발표( I )  
▶10:00~10:30 임상병리사의 교육 커리큘럼 및 실습과제에 대한 연구  
▶10:30~11:00 임상병리사 임상실무 견수에 따른 인원편성에 대한 연구  
▶11:00~11:30 임상병리사 종장기 인력수급 에 관한 조사 연구  
▶11:30~12:00 취업분야 분석 기반 미래전략 수립 연구

#### 특별강연 「4차 산업혁명의 개요」

- ▶14:00~14:40 4차 산업혁명의 개요  
-강지민(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4:40~15:20 4차 산업혁명과 임상병리사의 미래  
-김창현(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5:20~16:00 4차 산업혁명: Healthcare와 체의 진단기기 중심으로  
-임용(동의대학교)

#### 107+108 강의실

- Symposium I 2017 연구과제 발표( II )  
▶10:00~10:30 임상병리과 학제단일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10:30~11:00 감염관리 감시 배양검사의 표준화연구  
▶11:00~11:30 보수교육 발전방향  
▶11:30~12:00 중소병의원 회원 처우 가이드 라인

#### International Symposium

-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 in Antimicrobial Stewardship Team in Japan  
-Kenichi Shizuno(Japan)  
▶Recent Advances in Clinical Microbiology  
-Junn-Jong Wu(Taiwan)

- ▶Harmonization in Laboratory Testing  
-Eddie Ang Han San(Singapore)  
▶The current status of laboratory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in Japan  
-Masahiro Toyokawa(Japan)  
▶Innovation of Preanalytical Management System

-Rick, Chao-Wei Liu(Taiwan)

#### 101+102 강의실

- 학생포럼  
▶주제: 동아시아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진로 에 미치는 향

#### 101+102 강의실

- 분과학회 Symposium  
▶9:00~10:00 임상면역검사학회  
\*좌장: 이정현(서울대학교병원)  
임상병리사의 과거, 현재, 미래  
-패널토의  
▶10:00~11:00 임상화학검사학회  
\*좌장: 차경호(서울성모병원)  
1. Sigma Metric Analysis in the Laboratory  
-지명석(강북삼성병원)  
2. 갑상선기능이상 환자에서 혈청 크레아티닌과 시스타틴을 이용한 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의 상관성 연구  
-임규(삼성서울병원)

2. 육안병리사(PA: Pathologist Assistant)의 현재와 미래  
-김선재(서울아산병원)

- ▶11:30~12:00 임상검사정보학회  
\*좌장: 김대은(경북대학교)  
체외진단 4차산업의 미래와 창업  
-김중호(평문대학교)

#### 구연발표

- ▶주제 미정  
-연자 미정

#### 105+106 강의실

- 중소병의원학술세션( I )  
▶10:00~10:50 중소병의원에서의 감염 관리  
-김준(아주대학교병원)  
▶10:50~11:40 혈액학 검사결과 정도관리  
-이현0(고려대학교 안산병원)  
▶11:40~12:30 Urine Sedimentation  
-김명수(삼성서울병원)  
▶13:30~14:30 기본 폐활량검사  
-김진희(성비오로병원)  
▶14:30~15:30 심전도 실천연습  
-최소라(삼성서울병원)  
▶15:30~15:50 건강보험청구 같이 해 보 아요  
-안영(서울내과)

#### 103+104 강의실

- 분과학회 Symposium  
▶10:00~10:30 임상수혈검사학회  
\*좌장: 이은경(세브란스병원)  
ABO 혈액형 부적합 장기이식과 혈액은행의 역할  
-서숙원(서울아산병원)  
▶10:30~11:00 임상혈액검사학회  
\*좌장: 양미숙(세브란스병원)  
POCT 도입을 위한 진단혈액검사실의 역할  
-최미옥(서울아산병원)

#### 107+108 강의실

- 중소병의원학술세션( II )  
▶10:00~16: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진단검사  
-생리기능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평가

#### 전시홀

- 포스터발표  
▶13:00~14:00

# 5월 20일은 세계 임상시험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함께 세계 임상시험의 날(5월20일)을 앞두고 5월 18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제2회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임상시험은 질병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신약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신약의 최대 투여량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신약의 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2상,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임상 3상, 환자 진료에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판단하는 임상 4상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선 올해로 2회째인 '세계 임상시험의 날' 행사는 그간의 한국 임상시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상시험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공모전 작품 전시·임상시험 홍보관 운영 및 임상시험 유공자 시상식,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국내 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한 임상시험 유공자 5명에 대한 장관 표창과 '임상시험 사랑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https://www.konect.or.kr)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교육 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임상시험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계 임상시험의 날은 영국 해군의 군의관 제임스 린드(James Lind)가 항해 중 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괴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1747년 5월 20일 선원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과거 괴혈병은 장기간의 항해를 업으로 하는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던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일례로 1740년 영국 해군의 조지 앤스 제독이 1740년 1,955명의 대원과 함께 원양항해를 떠났는데, 1744년 귀항 시 전투로 사망한 사람은 4명이었으나 320명이 열병과 이질로, 997명이 괴혈병으로 사망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제임스 린드(James Lind)는 괴혈병에 걸린 병사 12명을 6군으로 나누어 임상실험을 진행하였는데, 1군에게는 사과술을, 2군에게는 식초를, 3군에게는 유헤산 화석액을, 4군에게는 바닷물을, 5군에게는 마늘, 겨자시 등을, 6군에게는 오렌지와 레몬을 복용시켰다. 이후 오렌지와 레몬을 먹은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오렌지와 레몬을 제공하며 환자들의 회복을 도왔다.

그는 시험결과를 1753년 '괴혈병의 치료'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서 린드는 괴혈병이 영양소의 결핍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바다의 습기가 땀을 흘리는 것을 방해하여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또 비타민 C가 열에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레몬 즙을 끓여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농축액을 괴혈병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고, 때문에 그의 임상시험 결과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실험 덕분에 선원들은 과학적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레몬과 오렌지가 괴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영국의 유명한 항해사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과 영국 해군의 길버트 블라인은 선원들에게 라임, 레몬 등을 제공했고 눈에 띄게 괴혈병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1795년 영국 해군성은 괴혈병 예방을 목적으로 모든 해군 병사들에게 감귤류 주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린드가 사망한 다음 해이고, 린드가 괴혈병 치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지 42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감귤의 성분이 괴혈병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었지만, 감귤의 어떤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밝혀졌다. 1937년 노벨위원회는 알베르트 센트죄르지에게 비타민C를 분리 추출한 공로로 노벨 생화학·의학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월터 노먼 호워스에게는 비타민C의 구조를 밝혀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다.

이후 오랜 연구 덕분에 괴혈병은 비타민C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인체 내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콜라겐 합성이 불완전해지고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오래 진행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출혈이 발생하며 잇몸과 근육이 약해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체는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없고 체내에 3개월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는데, 과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오랜 시간 항해를 계속하다보니 채소와 과일이 부족해서 체내 비타민C 결핍으로 이어져 선원들이 쉽게 괴혈병에 노출된 것이다.

## 협회

### 2018년도 행정실무워크숍 및 제157차 정기이사회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행정실무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회를 비롯하여 지회, 분과학회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뒤 마련된 첫 번째 행정, 재무, 운영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서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임상병리사의 미래(양만길 명예회장) ▶그룹웨어 교육(권민석 정보통신이사) ▶면허신고, 보수교육 및 전자출결 교육(황삼호 교육이사) ▶행정지도감사 교육(신동호 감사) ▶정관 및 재규정 교육(박중우 법제이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157차 정기이사회 회의가 실시되었다. 이와 별도로 박진건 중앙회 총회회장을 비롯한 각 지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총회의 의미와 총회회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생리기능검사 분야 업권 수호를 위한 업권 발전 위원회 산하의 테스크포스팀 신설과 2018년도 연구과제 선정 ▶업무효율 개선 및 서류근거 강화를 위한 협회 내 그룹웨어 도입 ▶보건복지부 대상 청정사 관련 개정안 반대연계 제출과 임상병리사 업무 유권해석 요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변경 및 배너광고 유치 ▶온라인보수교육,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규 계약 체결 ▶전자출결 시스템 고도화(태블릿 대체용 문자인증 시스템 및 입퇴실 독려 문자 발송 시스템) ▶「제3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탁구대회」 9월 1일 개최 예정의 건 등이 보고되었다.

안건심의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관 및 재규정 개정의 건 ▶면허 미신고자 안내 진행 아르바이트 채용의 건 ▶2019년도 57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선정의 건 등이 진행되었다. 전자문서 형식을 인정하지 않는 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이 중앙회를 비롯하여 지회, 분과

학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결재시스템에는 각 결재단계에서 결재 시간과 기록이 남고 PC를 비롯하여 모바일로도 결재가 가능하여 신속하면서도 투명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협회 임직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상주하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무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환불, 정산 등 회원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본료가 없는 KT비즈메카를 통해 소요되는 저장용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두 번째 면허신고가 도래하고, 면허 최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장시간의 민원전화와 폭주하고 있어 활동 회원 민원 접수와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활동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신고회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면허신고 안내 콜센터 전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장인호 협회장은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와 회원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강된 위원회 구성 등 진행사항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였다. 그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또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관련 사업의 자세한 진행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 26대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법제위원회 2)인사위원회 3)보수교육위원회 4)학술발전위원회 5)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6)편집위원회 7)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8)감염관리위원회 9)포상심의위원회 10)학술상 심사위원회 11)학생포럼위원회 12)회관 운영위원회 13)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14)국제위원회 14-1)ASCP committee 소위원회 14-2)AAMLS 소위원회 15)인증위원회 16)업권발전위원회 16-1)생리기능검



사 업권소위원회 17)보험위원회 18)회원과총처리위원회 19)청년취업지원TF 20)임상병리학 교육 평가원 추진TF 21)연수원추진TF. 이중 생리기능검사 업권소위원회와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청년취업지원TF는 26대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신설된 위원회이다.

## 장인호 협회장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순현 과장 간담회 및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5차 정기회의 참석

장인호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장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7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순현 과장 간담회 및 제5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관순현 과장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8개 단체의 2018년 주요 정책현안 처리를 전달했다.

또한 의기총 차원에서 공동추진하고 있는 「보건 의료

기사의 날 미래 비전 정책 선포식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관심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미 실시된 3개 단체를 제외한 우리 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의 최초 면허미실시 회원 행정처분 계획을 청취하였다. 단체장들은 원활한 개정안 진행과 의료기사의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간담회는 마무리되었다.

간담회 이후 실시된 회의에서는 차우개선, 위상제고 등 정책현안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회원 1인 1정당 가



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제단일화와 보건 의료기사의 날 신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주)충일화학  
CHOONG IL CHEMICAL, INC.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 이슈 체크

연일 뉴스 등 각종매체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인한 검체검사 수가 인하 사태 때와 같이, 임상병리사로서 때로는 환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재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 눈 여겨 볼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홍보 사이트(<http://medicare1.nhis.or.kr>) 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Says **정부의 목표**

#### ▶포용적 복지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5월 15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총장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 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내용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현 정부의 주요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업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지원 강화

#### ▶보편적 건강보장

제7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가 2018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WHO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에게 건강을 :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번 WHO 총회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국제적 보건정책 경향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란?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양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 Goals) 중 하나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8%) 그 결과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보장성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며,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현 시점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공공성 확보'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18년 5월 9일자 정부 출범 1년, 보건복지부 주요성과와 계획 및 2017년 12월 20일 보도자료 참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2017년 10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2017년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2017년 11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2017년 12월: 진료협력 관련 진료 의뢰, 회송 수가 상향 조정  
 2018년 1월: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및 외래정액제 개선  
 2018년 1월: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2018년 1월: 특진(선택진료비) 폐지  
 2018년 3월: 중증의상진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2018년 4월: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 사용 개수 제한 기준 완화 및 보험 적용

※**급여확대항목(13개)**  
 보육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폐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심전도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혈액교환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경피경간단층촬영술, 중금속검사, 간 또는 신생검시 특수염색검사, 요관확장용 치료재료,

※**예비급여항목(23개)**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7항목), 헬리코박터피로리 균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용 치료재료, 운동점치단순용 치료재료, 갑개소작술, 결막 제거술, 전염성연속종 제거술, 요도약액주입, 전립선맛사지,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바이러스배양검사, 중앙표지자 검사, 세포병리검사, 인근기능검사 등  
 2018년 4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인력 기준, 수가개선  
 2018년 4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  
 2018년 7월: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 소득하위 50% 가구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18년 12월: 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 의료 공급자 Says **의료계에 미치는 문제**

※2018년 5월 8일 대한의사협회 '문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참조

▶**비급여 진료비 통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의료수가의 가격 및 관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 부담을 기반 하지 않는 통제는 의료생태계와 의료발전 붕괴 및 저해를 초래한다  
 - 이미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수가는 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의료기관은 가격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서 손해를 보전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다지만, 건강보험 급여 영역으로 포함되면 결정권을 정부에게 있다. 비정상적인 수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진료비 평균 상승률만 비교해보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위협**  
 -보장성 강화 정책과 노인 의료비 급증 등으로 보험재정 위기가 우려된다. 현재의 재정은 의료이용량의 폭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증가가 간과되어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18년 당기적자 전환, '23년경 적립금 소진, '25년경 21.6조원의 누적 적자(기획재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2017.3.7.)

-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년 19조원, '25년 55조원, '30년 108조원 적자 발생(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2017.7.20)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우려하며 의약분업을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강행했고 1년 뒤 재정 적자가 발생하자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 대책이라며 의료계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강력한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했다.

▶**적정 수가 등 손실 보상에 대한 로드맵 부재**  
 - 비급여 수익으로 급여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적정 수가 보상 없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의료공급 체계의 기반 붕괴시키는 것이다  
 -2001년 의약분업 때에도 적정 수가 인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를 국민들의 의료소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기반 붕괴될 것이다.  
 - 의료소비심리로 인해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2006년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굳이 입원이 필요없는 아동들도 입원하면서 재정부담이 커져 2008년 폐지되었다.

▶**신의료 기술 및 의료발전의 위축**  
 - 예비급여나 신포괄수가제 등의 무리한 확대나 엄격한 가격 정책은 신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질 저하와 의료발전을 위축시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

▶**전문가의 소신 진료, 최선의 진료 통제**  
 -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과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 가격이 낮아지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증가에 대한 대안 부재

### 환자에게 미치는 문제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  
 - 급여화 되면 급여 기준, 심사체계에 의해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해당 의료 행위를 시행할 수 없음

▶**건보 재정 파탄 가능성**  
 - 비급여 급여화에 막대한 재원 소모  
 - 건보 인상 불가피  
 - 청장년 세대에 막중한 부담

▶**저질 의료, 싸구려 의료로 내몰리는 의료진**  
 -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 의사 쏠림  
 - 병의원 등 폐업으로 인한 진료의 기회 박탈  
 - 단기적으로 의료 수요 폭증,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실손보험혜택 감소**

### 정부 Says **해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털(<http://medicare1.nhis.or.kr>) -뉴스룸 -팩트체크(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 발췌

-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인가?**  
 -치료를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할 계획이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을 것.
-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나?**  
 -과거 비급여 급여 전환 시 낮게 책정되었던 관행과 달리,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비급여 총 규모를 수기로 보전하여 급여 부문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건강보험 수가가 OECD 1/3의 수준?**  
 →국가마다 진료행태, 의료제도, 보상방식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불가능. 다만 인력 수가 적어 업무 강도가 높기에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것.

**4. 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추진할 것. 다만 비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음. 또한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적이지 않고 의료 행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될 것.(2차 상대가치개편)

**5.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이 아닌가?**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 하는 것으로, 적정수가 책정과 진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할 것. 적정수가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비급여에 의존한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것.

**6.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것일 뿐. 착오청구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것. 전문심사 및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7.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비급여가 고급진료인 것이 아님. 표준가격이 책정됨으로써 오히려 선택권이 보장되고 급여화되더라도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

**8. 항암제 등의 의약품은 급여화하면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인가?**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난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한 것. 협의체를 통해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9.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관계가 없다. 총액계약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는 사범 사업일 뿐. 의원은 대상이 아님.

**10. 비급여의 급여화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상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민간보험사의 급여 지출이 감소할 수 있음. 이러한 반사효과가 생기면,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등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보험 연계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 예정.현재 반사영향 연구를 진행 중.

**11. 민간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12.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동네의원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하며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형병원과 의원이 경쟁하기 때문.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의원은 경증, 외래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해 나갈 것.

**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70조~120조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5년간(2017~2022까지) 필요한 재정은 30.6조원으로 전망.

**14.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지 않나?**  
 →이번 대책을 통한 보장을 개선 목표는 70%. OECD평균80%에 비하면 낮은 수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보험료 수입 기반 확충, 정부지원금 확대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것.

**15. 재정이 악화되면 수가 인하,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에 회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 20.8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음. 또한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심사 및 수가 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여 대정부 신뢰도를 회복할 예정.

**16. 앞으로 심사체계는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협의체 구성, 심사세부규정 공개, 심사실명제 등을 도입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점검제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유도할 것.

**17.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과거 10년과 유사한 수준(평균 3.2%)로 예상. 다만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

**18.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오히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함. 현재 건강보험 보장이 63% 수준으로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이 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고령화로 인한 국가 경제, 사회 전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음.

시도분과소식

경기도회, 제1회 학술대회 개최

● 명예기자 연제진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광우)는 4월 8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HIP)에서 2018년 제1회 경기도임상병리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회원들을 배려하여 일요일에 진행되었으며, 대학 및 종합병원 세션과 중소병원 세션으로 나누어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덕분에 약 620명이라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최종열 학술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광우 경기도회 회장의 인사말과 장인호 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경기도방사선사회 김광순 회장이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다.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세션에서는 이경훈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이현아 회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조성석 교수(신성대학교), 정복해 회원(PMC박병원), 이승모 회원(삼성서울병원), 정옥희 회원(목동힘찬병원)이 장비의 이해, 인증평가 준비 및 병원운영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회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승모 회원의 임상화학검사의 이해 강의는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회는 쉬는 시간에는 회원들을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 중 도민 보건향상 유공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이광우 회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시상식을 진행했다.

부산시회, 제1차 보수교육 실시

● 명예기자 박대성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강철수)는 4월 21일 동의대학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4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관리, ▶진단검사의 기원과 역사, ▶임상병리사 위상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분

과별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건의로 환경변화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부산시회의 다음 보수교육은 9월 15일에 예정 되어있다.

강원도회, 제1차 보수교육 실시

● 명예기자 김경희



강원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윤석관은)는 5월 13일 강릉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300여명의 회원과 집행부가 참석하였고 ▶수혈 가이드라인(안해경/강릉아산병원) ▶강원도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과 관리(장성욱/한국건강관리협회)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황규열/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 특강(윤남섭/서울아산병원) ▶유전자 특강: 임상 유전학의 발전과 이용(장선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간유전체 다양성 연구소) 등의 집행부가 고심하여 마련한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유전학적 검사는 최근 의료계 안팎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강의 사이에는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송치웅 회장과 조직위원회가 직접 참석하여 학술대회를 통보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도지사 표창 등에 대한 시상식도 이루어졌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 - 윤명재 ▶공로패- 강창구, 진혜경, 정영진, 최경식 ▶학술상-박순덕, 백호숙, 최동진, 김수겸, 권현미 ▶우수회원상-고준우, 김규원, 안순영, 홍영희, 박수정, 강태영, 김한송이, 노명호, 최민준

경남도회, 경남 보건의로단체연합회 정책간담회 참석

● 명예기자 김미영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는 5월 19일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경상남도보건의로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회원들의 위상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경남도회 안전 회장과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외에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 협회장 및 경남지역 의기총 8개 단체 회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북도회, 제1차 보수교육 실시

● 명예기자 권의훈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임대기)는 4월 21일 포항세명기독병원 대강당(광제홀)에서 2018년도 경북도회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사전등록과 일부 현장등록자를 포함하여 164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임대기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도회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위한 정도관리사업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도부터 실시한 도내 정도관리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점차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종합학술대회에도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하여 경북도회에서는 매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회의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는 이현아 회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진단혈액 내·외부 인증심사」에 대한 2시간의 특강과 신경회 중양회 학술부회장의(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전해질 기능 이해하기」, 「2018년 보수교육 정책과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강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지난 해부터 전면 시행된 보수교육 전자출결관리제에 따라 보수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경북도회는 중소 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많은 도회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도 실제 업무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강의로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강의내용에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임상화학검사항회, 제5회 화학전문임상병리사 교육생 모집

임상화학검사항회(회장 김명수)에서는 임상화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 5회 화학전문임상병리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교육일정 및 장소  
서울지역 (5주, 40시간)

\* 교육날짜는 교육 장소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회수	교육장소	날짜	요일	시간	교육시간
1		7월 28일	토	09:00~18:00	8
2	서울시	8월 11일	토	09:00~18:00	8
3	임상병리학회	8월 25일	토	09:00~18:00	8
4	2중 강의장	9월 8일	토	09:00~18:00	8
5		9월 22일	토	09:00~18:00	8

서울 지역 외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교육일정 및 장소 추후 재공지함.  
(대전 충청지역, 부산 경상지역, 광주 전라지역)

2. 모집인원

각 지역별 선착순 20명 이상 (단, 각 지역별 신청인원이 20명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통합되어 운영되며, 교육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

임상검사정도관리 이론과 실제, Method Evaluation & Validation, 효과적인 인증심사법 Reference intervals, AMR 검증방법 및 실험, Laboratory Statistics, 통계적 정도관리Specimen Handling, Preanalytical variables & Interferences, 기기본서,

Carbohydrates & DM test, Lipids, Enzymes, Cardiac Markers, Tumor Markers, NPN, Electrolytes, Bilirubin, Porphyrins, Proteins, Trace elements, Therapeutic Drug Monitoring & Pharmacokinetics, Electrophoresis, TFT, Urine chemistry quantitation, Inherited Metabolic Disorders & Newborn Screening, Vitamins & Hormones, 체액화학검사, Urinalysis(Urine strip test & microscopy), Urine chemistry, 검사실 안전등

4. 교육신청자격

임상화학 업무와 정도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

5. 자격시험 신청자격

-임상경력이 8년 이상인 자  
-협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최근 3년 보수교육 이수 및 협회비 완납)  
-대한임상화학검사항회가 주관하는 화학전문임상병리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교육 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2018. 05. 1(화) ~ 07. 14(토)
- 2) 접수방법: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화학전문임상병리사 교육과정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
- 3) 교육비: 40만원 (원서접수 확인 메일을 수신한 경우, 2주내 입금)
- 4) 입금처: 우리은행 1002 - 856 - 532823, 예금주) 남현수
- 5) 입금시 본인 면허번호 기입(예, 12345)
- 6) 문의 화학 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 교육간사 남현수  
전화 : 010-4705-6158  
E-mail : nhs71@hanmail.net

(재)씨젠의료재단, 한국-몽골 상호협력을 통한 울란바토르지역 결핵퇴치사업 관계자 초청 연수 진행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4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지역 결핵퇴치사업 관계자를 초청해 본원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과 이갑노 대표의원장, 김창수 행정원장 등 재단 주요 임원과 투무르바타르 바야사흐 바양주르흐구 구청장, 비라차트랄트-에르 몽골국가전염병관리센터(NCCD) 부원장, 자라갈 엔호츨 바양주르흐구 구립병원장 등 총 11명의 몽골 측 관계자가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결핵퇴치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결핵 예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의 사업추진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이동검진사업을 통한 결핵 발견율이 몽골 전체 평균 발견율보다 4.9배 높고, 사업을 통해 발견된 결핵 환자의 치료성공률 역시 94.7%로 이는 몽골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동검진과 최신장비 지원으로 진단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천종기 이사장은 몽골 관계자의 성과평가와 보고에 대해 “다년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진행된 결핵퇴치사업이 결핵에 대한 몽골의 보건의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와 이동검진 및 최신 검사장비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몽골 울란바토르지역 결핵퇴치사업은 대한결핵협회·(재)씨젠의료재단·(주)씨젠·현대차정몽구재단·L&K바이오매 등의 공동 지원 아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2차년도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계속된다.

(주)대광메디텍,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주)대광메디텍(대표이사 신만우)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주)대광메디텍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주)대광메디텍의 협력업체와 병원 등 350명에 달하는 내빈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신만우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높은 기술력과 정직한 영업을 바탕으로 30년간 성장을 이뤄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30년이 오기까지 협조해주신 고객과 대리점, 그리고 협력업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하였고, 앞으로 더욱 열린 사고와 준비된 자세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장기근속직원에 공로패를 전달하였으며 내빈객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념식 행사 2부에서는 연예인 축하 공연이 함께하는 저녁 만찬



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 모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대광메디텍 임직원과 가족들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에서 가진 3박 5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장학회



# 28년간 이어온 후배사랑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장학회 이사장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전자현미경실  
김영호 회원



지난 5월 1일,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 개교 47주년 기념식에서 임상병리장학회(이사장 김영호)가 지난 28년간 임상병리과 재학생 14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는 가슴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호 회원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1989년에 기회가 되어 모교에서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쌍용 교수님(학과장, 72학번) 연구실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학생(아간반)에게 외래 교수들이 매달 강사료를 조금씩 내어 학비를 지원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장학회의 시초였습니다. 이후 1991년 7월 31일에는 뜻이 맞는 13명이 창립총회를 하여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학기 별로 1주와 2만원씩 기부를 받아 한 학기에 2명씩, 1년에 4명에게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학금은 동문들의 동참 덕분에 5년 후에는 50만원, 10년 후부터 지금까지는 100만원씩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초대 이사장은 전종익 동문(당시 동대구의원, 72학번)이 199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역임하였고, 창립 때부터 이사 및 총무이사를 거쳐 현재까

지 제가 6번째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Q. 장학생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모교로 공문과 공고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추천 받고 이후 17명의 장학회 이사들이 서류심사를 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모교 학생복지팀으로 송금하여 전달. 학과 행사 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Q. 장학회 설립, 운영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운영방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어려움보다는 다들 선배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사랑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고 계셔서 장학생의 성장과 발전이 모두의 기쁨이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해 올 수 있었습니다.

최초 13명의 초창기 이사들이 열정적으로 동문 및 특별 회원들에게 장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독려하면서 매년 참여 회원들의 수가 배가 되어 갔습니다. 1999년부터는 30만원 기부를 통해 평생후원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현재까지 136명이 동참해 주셨고, 그 외 33명이 특별후원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 덕분에 1호로 장학금을 받

은 학생이 취업을 하고 장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평생후원회원과 특별후원금도 납부했으며, 현재는 장학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의 임상병리과 교수님들도 특별후원금을 통해 제자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총무이사를 하던 정세훈 회원이 올 3월에 진주보건대학교에 정교수로 발령을 받는 등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Q. 이사장으로서 바라시는 점 혹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임상병리장학회 산하에 대산장학회와 일상팔사회 장학회가 있는데 졸업 기수별로 이런 장학회가 많이 생기면 우리 학교, 학과는 물론이고 임상병리학계의 좋은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그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잘 되어서 평생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사랑과 온정을 이어간다면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 지겠죠.

장학사업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여러 동문들이 모교를 위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학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세상 누구도 살아 가면서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을 시 항상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장학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회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 회원참여코너

# 2018년!

## 병리협회를 열독하는 당신을 위한 이벤트!

“ 병리협보에서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 병리협보에 없었던 이미지를 찾아, 그 번호와 함께 가장 좋았던 기사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7분을 추천하여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기대감은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

1번



2번



3번



4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접수기한 : ~ 2018년 6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 이번 호 병리협보에 없었던 사진의 번호 :
  - 가장 좋았던 기사와 간단한 코멘트 :
  -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연락처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번호)

### [제424호 정답 및 당첨자]

1번

● **김종일 회원:** 저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임상병리사 회원이라면 '임상병리사 중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조사(비정규직 및 유휴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고찰 및 제언' 연구과제 1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현업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조금 더 진취적인 JOB을 갖고자 하는 저로서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도 기관이나 정부에서의 보조 및 개선점에 대해 너무나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 **박혜진 회원:** 질병관리 본부에서 화귀질환 진단 사업 시행한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환자를 직접 보면서

마음 아픈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다니 기쁘게 읽었습니다

● **김봉서 회원:** 임상병리사 중장기 인력 수급에 관한 조사» 내용- 체계적인 협회의 정책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 **최진영 회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화귀질환진단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유익했다. 화귀질환에 대한 진단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니 반갑기도 하고 화귀질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졌다.

## 제주도회 성산일출봉 등반을 다녀와서

한마음병원 하중운 회원

지난 13일, 제주도회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일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선정 7대자연경관인 성산일출봉을 등반했다. 회원들의 친선 교류 및 회원간의 단합을 위한 오름등반은 매년 개최되는 제주도회만의 행사다.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10만년 전 제주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는 드물게 바다 속에서 수중폭발한 화산체이다. 용암이 물에 석일 때 일어나는 폭발형 용암은 고온 화산재로 부서져 분화구 둘레에 원뿔형으로 쌓여 있다. 원래는 화산섬이었지만 신양 해수욕장 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육지와 연결이 된 것이다.(너비 약 500m, 길이 1.5km) 일출봉 정상에는 지름 6백m, 바닷면의 높이 해발 90m에 면적이 8만여 평이나 되는 분화구가 자리한다. 예부터 이곳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경관은 영주10경(제주의 경승지) 중에서 으뜸이라 하였다. 남산대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일출은 온 바다를 물들이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놓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케 한다.

1976년 제주도 기념물 제36호로 관리하다 2000년 7월 19일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동료 회원 그리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등반 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신영숙 회장님의 협회 현황과 도회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다 같이 함께 발전하고 회원 간 단합하는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파이팅을 외치며 오름등반을 마쳤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형광 면역 분석기

#### STANDARD F200 & Influenza A/B FIA

**정확성**

- COI(Cut off index) 제공
- 정도관리 물질 제공
- 기존 자사제품 대비 200배 이상 향상된 민감도

**편리성**

- LIS/HIS 연결
-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 3,000개의 데이터 저장 가능
- Mucous filter 제공
- Device 내 2D barcode를 통한 측정 항목 정보 자동 인식

**신속성**

- 최소 1.5분(90초) 이내 결과 출력 (최대 10분)

**추가 검사가능 항목**

- RSV Ag, HbA1c, CRP, PCT, U-Albumin

[ F200 Analyzer ]

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지철엠아이빌딩 C동 4층, 5층  
 공장 충청북도 정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74  
 Tel +82-31-300-0400 | Fax +82-31-300-0499 | E-mail sales@sdbiosensor.com | Website www.sdbiosensor.com  
 SD Biosensor is not related to Alere Inc. or to Standard Diagnostics, Inc.

CAP 인증기관 ISO9001 인증기관 KSLM 인증기관



Perfect Quality  
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검사의뢰 및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